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6, pp. 209-234
<https://doi.org/10.29212/mh.2023..126.20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7세기 중화적 천하질서에 대한 가장 강렬한 저항

— 동북아역사재단(임기환 지음),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 —

李玟洙*

본고는 임기환(서울교대)이 2022년에 발간한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에 대한 서평이다. 필자는 본서가 일반 대중은 물론 학계에도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확신한다.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세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역사적인 교훈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1. 들어가기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은 2022년에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임기환 교수(이하 저자)가 7세기 대전쟁인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의 역사적인 의미를 재조명하여 대중이 이해하

*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기 쉽게 집필한 교양서이다. 주지하듯이 저자는 36년 동안 국내의 고구려사에 대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낸 대표적인 고구려사 연구자이다.

고구려와 수·당 전쟁에 대한 기존 대중 교양서는 삼국시대 전쟁사의 일부,¹⁾ 연개소문 개인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당 전쟁사,²⁾ 고구려의 수·당 전쟁과 나당연합군의 고구려 공격으로 구분,³⁾ 그리고 612년 고구려-수 전쟁부터 신라-당 전쟁은 물론 돌궐, 토번, 백제 등도 종합해서 유라시아사적인 시각에서 다루었다.⁴⁾

상술한 기존 교양서는 저자 각자의 시각으로 고구려와 수·당 전쟁사를 이해하였으며, 학계와 대중에게 기여한 바가 없지 않다. 그러나 아무래도 책의 주제와 특성상 고구려-수·당 전쟁을 하나의 카테고리 통합하여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 그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서는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사를 일반적인 전쟁사 접근법을 적용한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본서의 ‘들어가며’에서 저자가 서술했듯이 동북아시아에서 국제 정세 운영의 중심축이었던 고구려가 수·당 70년 전쟁 끝에 소멸되었다는 것은 그 변동과 재편의 진폭이 얼마나 컸는지 잘 보여준다.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에서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사수전투는 민족 항쟁사에서도 회자될 만큼 칭송하는 시각이 크다. 고구려와 수·당 전쟁은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다. 만일 고구려-수·당 전쟁을 민족항쟁사

1) 임용한, 『전쟁과 역사(삼국편)』, 혜안, 2001 ; 임용한, 『한국고대전쟁사2(사상 최대의 전쟁)』, 혜안, 2012.

2) 김용만, 『새로 쓰는 연개소문傳』, 바다출판사, 2003.

3) 이윤섭, 『다시 읽는 한국사2: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책보세, 2014 ; 이윤섭, 『다시 읽는 한국사3: 나당연합과 발해』, 책보세, 2014.

4) 서영교, 『고대 동아시아 세계대전』, 글항아리, 2015.

의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저자의 지적처럼 객관적인 전쟁의 배경과 전황을 살펴보기 어려울 것이다.

저자는 우리 고대사를 공부할 때 ‘교훈적 역사’로 기억해야 할 대목으로 7세기의 역사를 제일 먼저 꼽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7세기의 격동기에서 고구려와 백제는 멸망하고 신라는 생존하여 삼국을 통합하였다. 저자는 이처럼 격동기의 역사에서 한 국가의 멸망과 생존이 미치는 사회 내부 동향과의 연결성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전쟁이 발발한 원인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서의 제목은 『고구려와 수·당 전쟁 70년 전쟁(이하 ‘70년 전쟁’으로 약칭)』이다. 이는 70년 전쟁의 시작이 598년 영양왕의 요서 공격이며, 마지막은 668년 평양성 함락이기 때문이다.⁵⁾ 이 제목은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을 동북아시아 세력권 전쟁으로 통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반영된 제목이기도 하다. 7세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3~4세대에 걸쳐 70년 동안 지속된 전쟁 혹은 전운 속에서 살았던 시기이다.

본서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 70년 전쟁을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고구려와

5) 본서의 ‘70년 전쟁’이라는 제목과 관련하여 『册府元龜』에 당이 고구려와의 전쟁을 70년 전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있어 참고 된다(『册府元龜』卷142 帝王部142 弭兵, “顧惟匪德, 事有乖於七旬, 在躬延責, 情致慙於四海.”). 이에 대해 李玟洙는 『册府元龜』에 전하는 663년 8월 唐 高宗이 고구려와의 전쟁 중단 조서에서 언급한 ‘事有乖於七旬’을 598년부터 전개된 고구려-수·당 전쟁의 70년을 의미한 것으로 보았다. 旬에는 10년이라는 의미도 있으며, 고구려-수 전쟁이 시작된 598년부터 고종이 고구려 공격 중단 조서를 내린 663년까지는 65년으로 대략 70년과 부합하기 때문이다(李玟洙, 『661~662년 고구려-당 전쟁 직후 양국의 동향』 『高句麗渤海研究』 73, 2022, 152쪽 각주 50). 이와 달리 徐榮教는 ‘事有乖於七旬’에서 ‘七旬’을 70일로 번역하였는데, 이에 대한 논거로 『資治通鑑』에서 蘇定方の 수군이 평양을 포위한 661년 7월 11일로 기록한 것과 契苾何力이 조원으로 철수한 같은 해 9월 20일을 주목하여 정확히 70일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았다(徐榮教, 「고구려의 最後와 彗星」 『震檀學報』 138, 2022, 51~52쪽).

수당 70년 전쟁을 집중적으로 다룬 본서가 갖는 가치는 결코 낮지 않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책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목차

들어가며: 7세기 대전쟁에 왜 주목하는가

제1장 격랑이 일어나기 전에

제2장 수의 등장, 그리고 첫 대결

제3장 수 양제, 고구려 원정을 결심하다

제4장 요하전투와 요동성전투, 승전의 숨은 주역

제5장 평양성전투와 살수대첩

제6장 2차 요동성전투, 그리고 수의 종말

제7장 당의 등장, 그리고 외교적 타협

제8장 642년, 대전환의 해

제9장 당 태종과 연개소문, 전쟁을 선택하다

제10장 645년, 대전쟁이 시작되다

제11장 주필산전투와 안시성전투

제12장 당, 고구려 재원정을 준비하다

제13장 661년 평양성전투에서 태산 봉선까지

제14장 고구려와 당 최후의 전쟁

나가며: 70년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자는 프롤로그격인 ‘들어가며’에서 7세기 대전쟁에 주목하는 이유를 먼저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후 1장은 5세기 동아시아의 세력균형과 6세기 중반 동아시아 정세 변화 그리고 2장부터 6장

까지는 수의 등장부터 수의 멸망, 7장부터 14장까지는 당의 등장부터 고구려의 멸망, 마지막으로 고구려-수·당 70년 전쟁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다룬 에필로그격인 ‘나가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목차 구성은 고구려- 수·당 70년 전쟁을 동북아시아 세력권 전쟁으로 파악하고자 한 저자의 의도와 부합한다. 이는 독자들이 ‘70년 전쟁’을 하나의 전쟁으로서 역사적인 흐름을 물흐르듯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 내용 살펴보기

제1장은 ‘70년 전쟁’을 다루기에 앞서 고구려를 둘러싼 5, 6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다루었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한 고구려가 중국에 수·당과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장은 598년에 전개된 1차 고구려-수(隋) 전쟁을 다루었다. 590년 수 문제(隋文帝)는 중국을 통일하고 돌궐(突厥) 등 주변 세력까지 모두 제압하여 중국 중심의 일원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고자 고구려에게 협박조의 오만한 국서를 보내 복속을 강요하였다. 이에 598년 고구려 영양왕(嬰陽王)은 직접 말갈(靺鞨)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요서(遼西) 지역을 선제공격하였다.

고구려의 선제공격에 분노한 수 문제는 곧장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수륙양면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요동으로 진격한 육군은 홍수와 군량부족으로 철군하였고, 수군(水軍)은 풍랑으로 인해 10의 8, 9가 죽었다고 한다. 수의 1차 고구려 침공

은 고구려 영내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실패하였다. 이에 대해 저자는 수 문제의 고구려 침공이 오만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허술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제3장은 수 양제(隋煬帝)의 고구려 원정 준비 과정에 대해 다루었다. 607년 고구려는 동돌궐에 사신을 파견하여 연대를 시도하였으나, 동돌궐의 계민가한(啟民可汗)이 고구려 사신을 수 양제에게 보여주면서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이때 수 양제는 고구려 사신에게 내년까지 영양왕이 입조하라고 겁박하였다. 돌궐, 토욕혼(土谷渾), 고창(高昌)을 복속한 수 양제와 그의 측근들은 중국 중심의 일원적인 국제질서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칼끝은 마지막으로 남은 고구려를 향하고 있었다.

612년 수 양제는 113만 3,800명이라는 대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전무후무한 대병력이기에 이를 불신하는 견해도 있으나, 저자는 합리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113만 3,800명이라는 수치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에 맞선 고구려의 총병력 규모는 30여만 정도로 추정하였다.

제4장은 2차 고구려-수 전쟁의 초기 전투인 요하(遼河)전투와 요동성(遼東城)전투를 다루었다. 요하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수의 대군을 상대로 무려 1개월 이상 동안 지연전을 펼쳤다. 이 기간은 후방의 고구려군이 전선을 준비하고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요긴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요하 전투를 고구려의 승리를 견인한 첫 전투로 새롭게 재조명하였다.

요하를 건넌 수의 군대는 고구려의 요동방어체계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요동성을 공격하였는데, 요동성의 고구려군은 무려 3개월 동안 전개된 수군의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성을 사수하였다. 저자는 2차 고구려-수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의 주역을 요동성의 군민으로 평가하였다. 만일 요동성이 수성에 실패하여 함

락되었다면 수 양제가 거느린 100만 명의 병력이 평양성으로 진군했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았다.

제5장은 평양성(平壤城) 전투와 살수(薩水)대첩을 다루었다. 내호아(來護兒)가 지휘하는 7만 명에 달하는 수(隋)의 수군(水軍)이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성으로 진군하였다. 이에 영양왕의 동생인 건무(建武)가 거느린 고구려군은 수군(隋軍)에 맞서 전투를 벌이는 척 하다가 거짓으로 패하여 평양성 안으로 수군을 유인했다. 수군이 평양성을 약탈하느라 대오가 흩어지자, 평양성의 절에 매복해 있던 고구려군은 일시에 수군을 공격하여 불과 수천 명만 생환하게 할 정도로 크게 승리하였다.

한편, 요동성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목이 잡혀있던 수 양제는 9개 군단 30만 5,000명으로 별동대를 편성하여 평양을 직공하라는 명을 내렸다. 고구려의 주장인 을지문덕(乙支文德)은 수군의 약점을 간파하여 거짓으로 패하면서 평양성 인근까지 깊숙이 유인했다. 을지문덕은 결국 수군이 퇴각하자, 사방에서 수군을 공격하여 살수에 이르렀을 때 수군에게 궤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수양제는 퇴각하였다.

제6장은 2차 요동성 전투와 수의 종말에 대해 다루었다. 고구려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613년 30여만의 병력과 최신 공성 무기를 대거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이러한 수군의 총공세에 요동성도 함락 위기에 처했으나, 후방에서 군량 수송의 책임을 맡던 양현감(楊玄感)이 크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급보를 접한 수 양제는 철군을 해야 했다.

반란을 진압한 수 양제는 614년 재차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2년 연속 대군을 동원한 탓에 수의 군사 동원시스템은 이미 붕괴되었기 때문에 수 양제도 더 이상 진군할 수 없었다. 수군(水軍)만이 비사성(卑沙城)을 공격하여 승리하였으나, 단독으로는

더 이상 고구려 공격을 감행할 수 없었다. 이때 영양왕이 수 양제에게 사신을 보내 직접 수 조정에 입조해서 항복하겠다고 하자, 철군할 명분을 얻은 수 양제는 급히 퇴각하였다.

그러나 영양왕은 끝내 수 조정에 입조하지 않았다. 연이은 패배에 수 양제의 위신은 크게 떨어지고, 반대로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올라갔다. 저자는 수 양제에 대해 고구려 원정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수명 단축은 물론 왕조를 멸망케 하였으며, 역사상 가장 포악한 군주라는 오명만을 남겼을 뿐이라고 평가하였다.

제7장은 당(唐)의 등장과 고구려-당의 외교 관계에 대해 다루었다. 고구려 원정의 실패로 인해 내란이 발생하여 멸망한 수 대신에 당이 중원의 주인이 되었다. 그 무렵 고구려에서는 평양성 전투 승리의 주역인 건무가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고구려의 27대 왕 영류왕(榮留王)이다. 영류왕대 고구려와 당 고조(唐高祖)대 당은 표면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626년 당 태종(唐太宗)이 즉위하자, 양국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630년 영류왕은 당이 돌궐의 힐리가한(頡利可汗)을 사로잡자, 당에 축하사절과 함께 고구려의 지도인 봉역도(封域圖)를 바쳤다. 631년 당은 고구려가 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수군의 유골을 모아 세운 경관(京觀)을 헐어버렸다. 이에 영류왕은 거의 매년 당에 보내던 사신을 640년까지 보내지 않았다. 사실 고구려는 이전부터 당의 팽창을 감지하여 631년에는 천리장성(千里長城)을 쌓는 대역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640년 당이 고창을 멸망시키자, 영류왕은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청산하고자, 당에 태자를 입조시켰다. 영류왕이 차기 왕위 계승자인 태자를 당에 파견한 것은 인질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그러나 당 태종은 고구려를 직접 자기 손에 넣

어 최초로 진정한 천하의 군주가 되고 싶은 야망을 가졌고, 고구려를 공격할 명분만 찾고 있었다.

제8장은 642년 연개소문(淵蓋蘇文)의 정변과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해 다루었다. 642년 영류왕 및 대신들과 연개소문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영류왕과 대신들은 연개소문을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하게 한다는 구실로 중앙 정계에서 축출한 후 몰래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연개소문에게 누설되었다. 이에 연개소문은 열병식에 참여한 100명 혹은 180여 명의 달하는 대신을 장안성 남쪽에서 죽이고 궁궐로 나아가 영류왕을 시해하고 보장왕(寶藏王)을 옹립하였다.

같은 해, 백제 의자왕(義慈王)은 신라를 공격하여 신라 서쪽의 40여개의 성을 함락하였으며, 나아가 신라 서변의 요충지인 대야성(大耶城)까지 차지하였다. 이에 신라의 김춘추는 고구려에 사신으로 가 보장왕에게 평화협정을 요청하였으나, 보장왕은 신라에게 한강유역을 돌려주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는 조건을 걸었다. 저자는 연개소문 정권이 신라를 적대세력으로 돌린 것에 대해 고구려 멸망의 대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큰 실책으로 평가하였다.

제9장은 당 태종과 연개소문이 전쟁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다루었다. 사방을 평정한 당 태종은 고구려 원정의 일환으로 641년 직방낭중(職方郎中) 진대덕(陳大德)을 고구려에 사신으로 고구려를 정탐하게 하였다. 저자는 영류왕 정권이 의도적으로 진대덕에게 고구려의 견고한 방어태세를 보여주면서 당의 침공을 겁게 하려는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았다. 이후에도 영류왕은 당에게 사신을 보냈다. 이처럼 당 태종이 고구려 원정을 결심하고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 영류왕은 유화책을 피하면서 가급적 전쟁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는 영류왕을 시해하고 정권을 장악한 연개소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결국 644년 연개소문은 신라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당 태종의 경고를 묵살하면서 전쟁을 선택하였다. 정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연개소문으로서는 당 태종에게 굴복하는 것은 쉽게 권력을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당 태종은 마침내 644년 10월 고구려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저자는 이 전쟁에 대해 애당초 고구려의 태도와는 관계없는 당 태종의 야심과 관련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당 태종은 육군 총사령관 이적(李勣)에게 6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게 하여 요동으로 진격하게 하고, 수군 총사령관 장량(張亮)에게 4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게 하여 바다를 건너 평양으로 진격하게 하였다. 당 태종이 직접 거느린 병력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저자는 당 태종의 본대 규모에 대해 대략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았다. 도합 20여만 규모의 명력이었다.

제10장은 645년 1차 고구려-당 전쟁 초기 전황에 대해 다루었다. 이적이 거느린 당의 육군은 우선 신성(新城)과 건안성(建安城)을 공격하였으나, 신성과 건안성은 당군의 공격으로부터 굳건하게 사수했다. 당군이 신성과 건안성을 공격한 까닭은 당 태종의 본대가 요동성에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요동성을 고립시키고 태종의 본대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주변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즉, 당군은 신성과 건안성의 요동성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당군은 견고한 대형급 산성인 신성 공략에 집착하기보다 대신에 신성과 요동성 사이에 있는 중형급 성곽인 개모성(蓋牟城)을 치열한 전투 끝에 함락하였다. 한편, 당의 수군은 요동반도 끝단의 비사성을 야습하여 함락하였다. 이처럼 고구려는 당군과의 첫 전투에서 개모성, 비사성을 빼앗겼지만, 중진인 신

성, 건안성을 지켜내면서 이후 당군의 요동 작전에 큰 제약을 걸었다.

요동성에 도착한 당 태종은 본대는 이적의 군대와 합류하여 최신 공성 무기와 화공을 이용하여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요동성을 7일간의 치열한 접전 끝에 함락하였다. 요동성을 함락한 당군은 요동성 동쪽의 백암성(白巖城)을 공격하였는데, 백암성주 손대음(孫代音)이 항복 의사를 전하고 백암성은 그렇게 당군의 수중에 들어왔다.

제11장은 주필산(駐蹕山)전투와 안시성(安市城)전투에 대해 다루었다. 당군은 안시성 외곽에 도착해 진영을 갖추고 이튿날 고연수(高延壽)와 고혜진(高惠眞)이 거느린 15만 명 고구려 군대가 안시성 외곽에 에 나타났다. 고구려군 내부에서 경험 많은 연로한 대로(對廬) 고정(高正義)은 장기전을 제안했으나, 고연수는 이를 무시하고 당군의 유인전술에 걸려들고 깊이 진격하였다. 그리고 고구려군의 배후에 숨어있던 다른 당군이 고연수군을 공격하자, 고연수군은 양쪽에서 협공을 받고 참패하였다. 당군이 퇴로를 끊고 압박하자, 고연수와 고혜진 등은 36,800명을 거느리고 당 태종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주필산 전투에서 승리한 당군은 고립무원이 된 안시성 공격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이에 당군은 평양직공책을 논의하다가 신성과 건안성의 10만 병력이 배후를 위협할 수 있다고 하여 결국 안시성 공격을 지속하기로 하고 60일을 소요하여 토산 축조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공들여 쌓은 토산이 무너져서 안시성 성벽을 허물자, 이틈을 탄 안시성의 고구려군이 토산을 장악했다. 당군은 토산을 되찾기 위해 3일 동안 밤낮으로 싸웠으나, 토산 탈환에 실패하였다. 결국 당 태종은 퇴각을 결정했다.

안시성에서 퇴각한 당군은 요동성을 거쳐 요하를 건너기 시작했다. 요하 서쪽에는 200리 늪지대인 요택(遼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당군은 늪지대와 추위로 인해 악전고투를 치러야 했다. 저자는 본국에 도착한 당 태종이 자신의 고구려 원정이 승리했음을 선포한 조서에 대해 평양성 함락과 연개소문에 대한 치죄를 호언장담한 것에 비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성적표임을 지적하였다.

제12장은 당의 고구려 재원정 준비에 대해 다루었다. 고구려 원정에서 돌아온 이듬해인 646년 당 태종은 북방의 설연타(薛延陀)를 멸망시키고, 철륵(鐵勒) 여러 부족의 투항을 받았다. 당 태종은 647년 고구려 재원정 논의를 하여 소규모 군대로 고구려를 피로하게 한 뒤에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647~648년 당 태종은 수군을 동원하여 요동반도 남단과 압록강 일대를 공격하고, 육군으로 요동 방어망의 후방을 공격하였다. 이 시기 당 태종은 신라의 김춘추(金春秋)와 대담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공멸할 것이라는 밀약을 맺기도 했다. 그리고 당 태종은 649년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려 했으나, 사망하면서 고구려 재원정은 잠정 중단되었다.

당 태종의 사망 이후, 장손무기(長孫無忌) 정권이 유화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는 사이 고구려는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서돌궐(西突厥)과 연결을 시도하거나, 요서 지역의 거란(契丹)을 공격하는 등 공세적인 전략을 취하였다. 그러나 장손무기 정권이 실각하면서 당은 다시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펼치면서 650년대 후반에 서돌궐을 멸망시키고 660년에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이로써 당은 신라와 함께 양면으로 고구려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제13장은 661년 평양성 전투와 태산(泰山) 봉선(封禪)에 대해

다루었다. 당 고종은 661년 수군(水軍)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하여 고구려와의 전면전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압록강 방면에서 남생(男生)의 고구려군을 대파한 글필하력(契苾何力) 군대 등은 서부 몽골에 일대 있던 철륵의 반란으로 인해 철군하게 되었다. 북진하던 신라군도 백제부흥군 때문에 더 이상 진군하지 못했다. 평양성을 포위 중이던 당군은 보급이 끊긴 상황에서 고구려군의 역공세를 받아 662년 사수(蛇水) 전투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방효태 군대가 전몰하였다. 소정방(蘇定方)의 당군도 궤멸 위기에 처했으나, 신라군으로부터 보급을 받고 겨우 퇴각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3년 반이 지난 665년 당은 태산 봉선을 추진했는데, 사방에서 다수 국가가 대거 참여하고 여기에 고구려의 태자도 참여하였는데, 당이 먼저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당이 고구려를 군사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포기한 대신에 의례적 복속을 대가로 고구려와 평화적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이다. 즉, 양국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우호적 관계로 바꾸는 외교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666년 연개소문의 장남 남생이 투항하겠다는 사신을 당에 보냈다. 강경책을 포기하고 유화책으로 돌아섰던 당 고종에게 행운이 찾아온 것이다.

제14장은 고구려와 당 최후의 전쟁에 대해 다루었다. 당에 투항 사신을 보낸 남생은 연개소문의 장남으로서 655년 그의 뒤를 이어 태막리지(太莫離支)직에 올랐다. 그러나 남생은 지방을 순행하는 동안 평양에 남아 있던 두 동생인 남건(男建), 남산(南産)과 서로 의심하고 배신하여 국내성(國內城)으로 쫓겨나 처지가 곤란해진 나머지 결국 당에 투항하였다. 666년 남생이 자신의 아들인 헌성을 당에 보내자, 당 고종은 남생을 구원한다는 명분으로 출병하여 신성을 공격하였다.

667년 신성은 무려 8개월 동안 항전하였으나, 성안의 저항력도 한계에 이르러 결국 내부에서 투항자들에 의해 성문이 열렸다. 당군은 신성 함락 이후 남생의 군대와 합류하여 신성에서 소자하(蘇子河) 유역을 거쳐 국내성까지 관통하는 지역이 당군에 의해 장악되었다. 한편, 고구려 동남부에서는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淵淨土)가 신라에 투항하여 신라는 고구려의 남부를 압박해 들어갈 수 있었다. 연개소문 집안의 내부 분열이 고구려 국가 전체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668년 당군이 부여성(扶餘城)을 함락하자, 그 주변의 40여개 성이 항복하였다. 이후 당군은 대행성(大行城) 등 압록강 일대를 공략하고 고구려군은 압록책을 구축하여 최후 항전에 나섰다. 고구려군은 무려 4개월 동안 버텼으나, 결국 당군은 압록책을 돌파하고 평양성에 이르렀다. 이때 신라 역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 남부의 중진인 한성(漢城)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북진하여 당군과 합세하여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당시 평양성의 고구려군은 신라-당 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펼쳤으나, 모두 패배하고 결국 보장왕과 남산 등이 먼저 항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건 등 평양성 군민은 끝까지 당군에 저항하였으나, 결국에는 평양성 안에서 배신자 신성으로 인해 성문이 열렸다. 신라-당 연합군이 평양성에 진입한 이후에도 고구려군의 치열한 저항은 5일 동안 지속되었다. 저자는 이처럼 고구려 평양성의 최후가 무기력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에필로그 격인 ‘나가며’는 ‘70년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다루었다. 저자는 ‘70년 전쟁’에 대해 수-당이라는 통일제국이 추구한 중국 중심의 세력권 구축에 대해 고구려가 독자적 세력권을 유지하려고 대결한 일종의 세력권 충돌로 보았다. 고구려는 ‘70년 전쟁’에서 산성을 거점으로 하는 방어 전략

과 청야전술로 인해 수차례 승리를 거두었으나, 외교의 경직성, 지배층 내부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저자는 연개소문 가문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독점한 것은 지배층의 분열과 내부를 촉진시키면서 고구려 멸망을 재촉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최후의 독자적 세력권을 유지하였던 고구려의 멸망에 따라 동아시아는 중국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로 개편되었으며, 그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이러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문화권의 형성으로 당 문화는 기본적으로 중화적 천하질서의 이념적 실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고구려가 수당과 벌인 70년 전쟁은 그러한 중화적 천하질서의 확대 과정에 대한 가장 강렬한 저항이었다.

3. 참신한 시각과 몇 가지 아쉬운 점

저자는 본서에서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이하 70년 전쟁으로 약칭)의 원인과 양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 양국의 전략과 군사력의 규모, 그리고 전투 양상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새롭게 재조명하거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전투도 적지 않다.

저자는 612년 3개월의 치열한 요동성전투를 평양성전투와 살수대첩에 못지않은 비중을 두어 요동성전투의 승리가 평양성전투와 살수대첩이라는 승리를 견인하였음을 강조하였다. 613년의 요동성전투 역시 612년 요동성전투에 못지않은 평가를 받아야 함을 역설하였다. 당시 수군이 612년 요동성 전투 때와는 달리 최신 공성무기를 동원하였음에도 요동성의 군민들은 적절한 임기응변으로 이 공성무기들을 무력화하였기 때문이다.

612년 살수대첩도 사서의 기록과 정황을 통한 개연성 있는 추론으로 당시 수군(隋軍)의 규모와 피해규모에 대해서도 기존의 견해와는 다르게 접근하였다. 특히 저자는 살수대첩에서 많은 병사들이 죽었다는 상황은 비록 수의 군사라고 하더라도 통쾌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정작 전쟁을 일으킨 수 양제를 비롯한 지배층은 무사히 돌아가고 애꿎은 병사들의 목숨만 살수에서 희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본서는 전쟁사에 대한 교양서이지만, 전쟁과 승리를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기보다 전쟁이라는 행위의 참담함과 모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였다.

그리고 645년 고구려-당 전쟁에서 주필산전투에 대해서도 기존의 견해와 달리 당 태종이 승리를 과대포장하기 위해 고구려군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과장하고, 당군의 규모를 3만 명 정도로 축소한 것으로 보았다. 고구려가 멸망한 최후의 전쟁도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서에서는 금산(金山) 전투가 이때 일어난 전투로 보았으며, 당군과 고구려의 부여성 구원군의 전투를 압록강 일대에서 전개된 것으로 새롭게 보았다.⁶⁾ 또한 평양성 함락 과정에서 『삼국사기』에 기록된 신라의 군사 활동을 통해 평양성이 허무하게 함락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⁷⁾

본서는 서술 방식에 있어 고구려가 수당과의 전쟁에서 수차례 승리한 것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칭송하기보다 고구려 군사방어 체계의 특성과 승리 요인 그리고 한계도 함께 살펴보려는 등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장’과 ‘장’ 사이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서술한 ‘수 양제의 군대는 백만

6) 이에 대해서 저자는 최근 논문에서 상세히 논증하였다(임기환, 「고구려와 당 최후의 전쟁 과정 복원 시론」 『韓國史學報』 86, 2022).

7) 이에 대해서 저자는 최근 논문에서 상세히 논증하였다(임기환, 「고구려 멸망기 신라의 군사 활동」 『韓國史學報』 90, 2023).

이 넘었을까’, ‘연개소문과 그의 가문’, ‘안시성주 이름은 양만춘이 아니다’, ‘아프라시아브궁전벽화의 고구려 사신도’에 대한 부연 설명은 본서의 깊이를 한층 더해준다.

다만, 본서를 읽으면서 필자가 느낀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저자는 612년 살수대첩 당시 압록강을 건넌 부대는 별동대 30만 명 중 전투 병력 10만 명 정도이며, 압록강을 건너지 않은 20만 명의 치중 병력은 전투 병력 1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널 때 이미 후방으로 회군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별동대 30만 명이 전멸하여 중 2,700명만이 살아 돌아간 것처럼 기술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중문(于仲文)이 우문술(宇文述)에게 10만 운운한 대목은 별동대 전투 병력 총합이 아니라 우문술의 직속 병력 10만 명을 지칭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 처음 별동대가 요수(遼水)를 건넌 때 30만 5,000명이었으며, 그중에 요동성까지 도착한 병력이 2,700명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여전히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저자는 645년 1차 고구려-당 전쟁에서 당군이 6월 1일 백암성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다시 요동성으로 갔다가 6월 11일에 안시성으로 진군하여 6월 20일에 도착한 느긋한 행보에 대해 의문스럽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선에서만 그쳤을 뿐 이에 대한 추론이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저자의 견해가 약간이라도 들어갔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저자는 주필산 전투에서 당군의 병력이 3만 명, 고구려군의 병력이 15만 명이라는 기록들에 대해 여러 의문을 제기하여 당 태종이 거둔 승리를 과대 포장한 대표적인 사례로 추정하였다.⁸⁾ 필자도 주필산 전투에 적지 않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자

의 이러한 의문제기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 그러나 교양서임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의 논증보다 정황증거 제시에 그쳤다는 게 아쉽다.

둘째, 영류왕과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가 다소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저자는 630년 영류왕이 당 태종에게 봉역도를 바친 행위에 대해 고구려가 자신의 세력권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산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세에 있던 고구려가 불필요한 외교적인 도발을 시도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고구려가 당 태종에게 봉역도를 바친 원인은 당이 돌궐로부터 우위를 점하자, 고구려가 당과에게 우호적임을 천명한 것이다.⁹⁾

저자는 631년 당이 고구려가 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전승탑인 경관을 허문 사건을 계기로 영류왕이 당에게 위협을 느껴서 640년까지 당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634년 영류왕은 승려 파견을 통한 당과의 외교를 재개하였으며,¹⁰⁾ 639년에도 당에게 사신을 파견한 바 있다.¹¹⁾ 642년 당 태종은 영류왕이 당에게 공물을 보내는 것을 끊은 적이 없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¹²⁾ 이로 보아 640년 태자를

8) 徐榮教와 문영철은 여러 사료에서 고구려가 동원했다는 15만 명의 병력 규모 기록을 인정하면서 연개소문이 이러한 대병력을 보낸 이유에 대해 당 태종 본대를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徐榮教, 「駐蹕山 전투와安市城」 『동국사학』 58, 2015 ; 문영철, 「645년 고구려군과 당군의 주필산 전투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102, 2021).

9) 방용철, 「高句麗 榮留王代の 정치 동향과 對唐 관계」 『大丘史學』 102, 2011, 40~41쪽 각주 13.

10) 『佛祖統紀』 券39 法運通塞 志 第十七之六 唐太宗 貞觀 8年. “萊州奏, 高麗三國僧, 願入中國學佛法, 欲規虛實耳, 魏徵曰陛下所爲善足爲夷狄法, 所爲不善, 雖距夷狄, 何益於國, 詔許之.” 영류왕이 당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공식적인 교섭을 위해 승려를 파견하였다고 이해하기도 한다(방용철, 위의 논문, 2011, 10-16쪽).

11) 『舊唐書』 券3 本紀3 太宗 貞觀 13年, “是歲 …… 高麗新羅西突厥吐火羅康國安國波斯疎勒于闐焉耆高昌林邑昆明及荒服蠻酋 相次遣使朝貢.”

당에 보내기 이전에도 간헐적이기는 하나, 당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¹³⁾ 이는 영류왕이 천리장성 축조와 별개로 당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640년 당이 고창을 멸망시킨 것을 계기로 영류왕이 당에게 태자를 보낸 것에 대해 태자가 당의 인질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화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당시까지 고구려의 중국왕조에 대한 태자 파견은 전쟁에서 패배한 후 전연(前燕)에 대한 칭신(稱臣) 사례뿐이었다. 이는 장구한 기간에 걸쳐 신성성을 보유하고 있던 고구려 왕실의 위상을 고려할 때 고구려의 국제적인 위신 및 고구려 사회 전반의 위상 저하 등도 초래하여 내부의 반발도 야기한 측면이 있다.¹⁴⁾

저자는 641년 7월 당이 병부 소속의 직방낭중 진대덕이 고구려의 성읍마다 관리들에게 비단을 주어 고구려의 세세한 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영류왕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영류왕이 의도적으로 고구려의 견고한 방어태세를 보여주면서 당 태종의 침공의 뜻을 접게 하려는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저자의 견해처럼 만일 영류왕이 의도적으로 진대덕에게 고구려의 견고한 방어태세를 보여준 것이라면 진대덕이 성읍마다 관리들에게 수고스럽게 몰래 뇌물을 줄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 대목은 진대덕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정도로

12) 『資治通鑑』 卷196 唐紀12 太宗 6년 11월, “亳州刺史裴行莊奏請伐高麗, 毫, 旁各翻. 麗, 力知翻. 上曰, 高麗王武職貢不絕, 爲賊臣所弑, 朕哀之甚深, 固不忘也. 但因喪乘亂而取之, 雖得之不貴, 且山東彫弊, 吾未忍言用兵也.”

13) 방용철, 앞의 논문, 53~50쪽.

14) 방용철, 위의 논문, 52~54쪽.

안일했던 고구려 성읍관리들의 안보의식을 보여준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영류왕의 당에 대한 적극적인 유화적인 정책과 영류왕에 대한 당 태종의 철저한 기만이 아니었을까 싶다. 『삼국사기(三國史記)』도 진대덕이 고구려의 허실을 엿보았으나, 고구려는 이를 몰랐던 것으로 기록한 바 있다.¹⁵⁾

저자는 연개소문 정변 전말에 대해서도 영류왕이 대신들과 모의하여 먼저 연개소문을 죽이려고 했다는 기록을 두고 연개소문이 자신의 정변을 합리화하기 위해 유포한 거짓된 정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저자의 추측처럼 연개소문이 거짓된 정보를 유포한 것이라면 연개소문에 대해 공포하고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식의 부정적인 묘사가 포함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묘사가 반영된 연개소문의 정변 기사는 오히려 연개소문의 반대파로부터 비롯된 정보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자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 무엇보다 권력욕이 앞섰으며, 당과의 전쟁 수행도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연개소문이 당과의 전면전을 수행 하는 데 있어 고구려 사회 전반적인 공감을 얻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연개소문은 독자세력권 회복을 추구하며 대당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대신라 강경책을 구사하겠다는 정치 세력의 대표로서 대외정책을 두고 대당유화책인 영류왕과 극단적인 대립 끝에 유혈정변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다.¹⁶⁾

저자는 연개소문이 당과의 전쟁을 앞두고 배후의 신라를 적대세력으로 돌린 것에 대해 연개소문의 대신라정책을 큰 실책이라

15) 『三國史記』 卷20 高句麗 本紀8 榮留王 24年, “大德回奉使, 胡國虛實, 吾人不知.”

16) 김강훈, 「고구려 영류왕 후기 대외정책의 변화와 연개소문의 정변」 『歷史學報』 249, 2021.

고 평가하였다. 642년 신라 김춘추는 고구려에게 백제를 공격할 군사를 빌려줄 것을 청하였다. 연개소문이 김춘추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백제를 적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백제는 신라를 상대로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한 상황이었다. 당과의 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개소문이 신라보다 군사적인 우위가 확인된 백제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저자의 이러한 평가는 훗날 신라가 당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에서 비롯한 다소 결과론적인 시각으로 생각한다. 당시 연개소문으로서는 당이 서해를 횡단·직공하여 백제를 멸망시키거나, 고구려가 신라-당 연합군에게 멸망당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셋째, 본서에서 참고한 참고문헌에 대한 부분이다. 본서는 2022년 7월 15일에 발행되었다. 본서에서 참고한 가장 최신 연구 성과는 2022년 3월 31일에 발행된 정동민의 『고구려-수 전쟁(신서원, 2022)』이다. 다만, 참고문헌에 언급된 2020년대의 연구는 앞서 언급한 정동민의 연구를 제외하면 김진한,¹⁷⁾ 여호규 외 5인(공저),¹⁸⁾ 장창은,¹⁹⁾ 정원주,²⁰⁾ 정호섭²¹⁾의 연구뿐이다. 2010~2020년대에 논의된 고구려-수 전쟁, 영류왕과 연개소문, 고구려-당 전쟁, 고구려의 내분과 내전, 고구려의 대외관계 등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 성과들이 참고문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17) 김진한, 『고구려 후기 대외관계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18) 여호규강현숙백종오·김종은·이경미·정동민,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VIII(혼하-요하 중상류), 동북아역사재단, 2020.

19) 장창은,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온샘, 2020.

20) 정원주, 「645년 당 태종의 고구려 원정 목적과 의미」 『高句麗渤海研究』 67, 2020.

21) 정호섭, 「고구려 안시성의 위치와 안시성주 전승의 추이」 『高句麗渤海研究』 67, 2020.

물론 이는 저자의 고의적인 누락이라기보다는 지면의 한계와 본서의 성격이 학술서적이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드시 전부 일일이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필자가 이러한 아쉬움이 남는 까닭은 본서의 말미에 수록된 참고문헌이 일반 대중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고구려-수당 70년 전쟁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4. 나가기

필자가 본서를 읽으면서 약간의 아쉬운 점을 표현하긴 하였으나, 그렇다고 본서가 갖는 의의나 가치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자의 부족한 식견과 미숙함으로 인해 혹여 저자의 견해와 의도를 오해한 부분이 있을까 염려스러운 마음도 크다. 평소 7세기 고구려-수당 전쟁사에 관심이 적지 않았던 필자는 본서가 출간되자마자, 구입해서 탐독했을 정도로 본서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컸다.

그러던 중 우연히도 필자에게 본서의 서평을 쓸 기회가 주어졌다. 아무래도 필자가 7세기 고구려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필자는 아직 많이 미숙하고, 공부 중인만큼 과연 본서를 읽고 서평 할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통해 배우고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본서를 읽고 관련 선행 연구 성과들을 섭렵하였다. 이처럼 필자는 본서를 읽으면서 7세기 고구려

-수·당 전쟁에 대한 선행 연구 성과의 정리는 물론 70년 전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보는 매우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다.

40년 가까이 고구려사 연구에 매진하여 학계와 대중에게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저자는 본서를 통해 고구려와 수·당의 70년 전쟁을 간결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전달하였다. 본서는 향후 일반 대중에게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 업계에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유의미한 소재를 던질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대중 콘텐츠로도 고구려-수·당 전쟁기 배경을 소재로 한 사극이 드문드문 나왔지만, 흥행여부를 떠나서 고구려-수·당이 갖는 유의미한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필자는 지난 2018년 모방송사의 드라마국 모CP를 만난 자리에서 7세기 고구려사에 대한 콘텐츠 소재를 어필한 적이 있다. 당시 모CP는 필자에게 고구려사는 동북공정에 대한 관심이 식은 대중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큰 의미를 찾기 어렵고, 대중국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물론 필자가 콘텐츠 시장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어리숙하게 고구려사를 어필한 측면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필자는 본서를 읽으면서 만일 2018년에 본서가 세간에 나오고 필자가 본서를 읽었더라면 모CP에게 고구려사를 보다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다. 현재 필자는 고구려사 공부는 물론 고구려-수·당 70년 전쟁을 배경으로 연재 중인 웹툰 두 작품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서는 공부와 콘텐츠 작업을 병행 중인 필자에게 고구려-수·당 전쟁이 가져다주는 역사적인 의미와 ‘70년

전쟁'의 콘텐츠화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귀중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7세기에 전개된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 속에서 고구려와 수·당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의한 여러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다. 이러한 '70년 전쟁'을 다룬 본서는 '들어가며'에 서술되어 있듯이 오늘 대한민국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역사적인 교훈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사료

『三國史記』 『舊唐書』 『冊府元龜』 『資治通鑑』 『佛祖統紀』

2. 단행본

김용만, 『새로 쓰는 연개소문傳』, 바다출판사, 2003.

<http://uci.or.kr//G701:B-00089313771>

서영교, 『고대 동아시아 세계대전』, 글항아리, 2015.

<http://uci.or.kr//G901:A-0006555193>

이윤섭, 『다시 읽는 한국사2: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책보세, 2014.

이윤섭, 『다시 읽는 한국사3: 나당연합과 발해』, 책보세, 2014.

임용한, 『전쟁과 역사(삼국편)』, 혜안, 2001.

<http://uci.or.kr//G901:A-0006004232>

임용한, 『한국고대전쟁사2(사상 최대의 전쟁)』, 혜안, 2012.

<http://uci.or.kr//G901:A-0006004232>

3. 연구논문

김강훈, 「고구려 영류왕 후기 대외정책의 변화와 연개소문의 정변」
『歷史學報』 249, 2021.

문영철, 「645년 고구려군과 당군의 주필산 전투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102, 2021.

<http://doi.org/10.37331/JKAH.2021.06.102.309>

방용철, 「高句麗 榮留王代の 정치 동향과 對唐 관계」 『大丘史學』
102, 2011.

<http://uci.or.kr//G701:C-00056497154>

徐榮教, 「駐蹕山 전투와安市城」 『동국사학』 58, 2015.

<http://doi.org/10.22912/dgsh.2015..58.49>

徐榮教, 「고구려의 最後와 彗星」 『震檀學報』 138, 2022.

李玟洙, 「661~662년 고구려-당 전쟁 직후 양국의 동향」
『高句麗渤海研究』 73, 2022.

<http://doi.org/10.34159/tkby.73..202207.005>

임기환, 「고구려와 당 최후의 전쟁 과정 복원 시론」 『韓國史學報』
86, 2022.

<http://doi.org/10.21490/jskh.2022.2.86.45>

임기환, 「고구려 멸망기 신라의 군사 활동」 『韓國史學報』 90,
2023.